전주비빔밥축제 개막

맛나게 비벼보Go… 즐겨보Go…

28일까지 진행… 실크로드 음식 유네스코 심포지엄
전국요리경연대회 · 35동 우리동네 비빔밥 퍼포먼스
모여라 비빔밥 등 열려… 쿠킹콘서트 등 상설 프로그램도

'2018 전주비빔밥축제'가 25일 전주시 완산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빔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2018 전주비빔밥축제'가 25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미식도시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축제는 전국 9개 도에서 모인 특산품을 고명으로 얹어 만든 대형 비빔밥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및 공예창의도시, 중국 섬서성 요리연합회 등 해외에서 온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 나누는 글로벌 대동 비빔퍼포먼스로 진행된다.

25일 개막식에 이어 26일에는 실크로드 문명의 터키와 이란,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유네스코 · 실크로드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대 음식문화의 경로와 가치를 분석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실크로드 음식 유네스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전국 요리관련 학과 학생과 전문가 등 700여명이 전주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의 장을 펼치는 전국요리경연대회 라이브 경연도 펼쳐진다.

27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앞 전주천 서로에서 '35동 우리동네 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행사장 메인에 위치하는 대형비빔밥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0인분으로 차려지며 전주시 35개동에서 준비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비빔밥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1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가족과 친구, 단체가 팀을 이뤄 개성있는 비빔밥을 연출하고 우수비빔밥으로 선정되면 시상이 수여되는 '모여라! 비빔밥'이 진행된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샌안토니오(미국)와 가지안테프(터키), 마카오(중국), 츠루오카(일본), 청두(중국) 등 5개국 6개국 쉐프들이 직접 각 도시의 요리를 선보이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초청 마스터쉐프 쿠킹콘서트'가 진행되고, △전주음식 명인 · 명가 · 명소의 음식장인들이 축제장에 직접 나와 관람객들과 만나는 특별전 △전주의 독창적인 식기류와 일본 가나자와 · 이천의 식기류 등의 미식테이블웨어전이 열린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션 수행 후 얻은 재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비빔밥을 찾아라' △비빔밥의 3가지 유래에 대한 상황극을 체험하고 전설속 비빔밥을 맛보는 '비빔전설' △어린이 1,000여명이 요리사가 돼 비빔밥을 즐기는 '옹기종기 비빔밥' △전주시민들이 만든 다양한 간편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맛있는 프리마켓' △전주시 명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어오면 기념품과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식도락 전주여행'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글로벌 미식축제 2018 전주비빔밥축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화려한 막을 열었다"며 "이번 주말에는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다양한 전주의 음식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비빔밥축제를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비빔밥축제 취재를 위해 중국 온라인 · 모바일 방송인 텅쉰다라오왕 미식채널과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비빔밥축제와 전주관광 컨텐츠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중국팀 등이 방문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완산수영장, 내달 1일 정상운영

오늘 전주시설관리공 홈피에 강습시간표 게시
30일부터 이틀동안 사전접수 진행키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완산수영장이 1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한다.

완산수영장은 26일 공단 홈페이지에 '11월 1일자 강습시간표'를 게시하고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완산수영장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개장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25일 올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개보수 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51억원이다. 당초 사업비 30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점검과정에서 노후 벽체가 무너지는 등 문제점이 추가로 확인돼 2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25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보수를 통해 노후화로 부식된 내, 외부 마감재를 습기에 강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교체해 안전성을 높였고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전광판과 계측기기를 전면 교체했다. 또 풀장 주변 데크타일과 바닥난방 배관을 교체하는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미관도 살렸다.

또한, 15년 간 운영한 노후 기계실 보일러를 고효율 온수보일러 시스템으로 교체해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영장 앞쪽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시민 접근성도 높였다.

권영대 운영부장은 "이번 공사로 훨씬 개선된 시설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들을 다시 맞이할 우리 완산수영장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수영장은 2003년 전국체육대회 수영경기를 위해 건립됐으며 2004년 3월1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현재 경영(초, 중, 고급, 연수반), 아쿠아로빅 등 총 54개 강습반을 운영 중으로 이용객이 연인원 13만2226명에 달하는 전라북도 유일의 공인1급 수영장으로 50m 레인 10개를 운영 중이다.

/송효철 기자

27~28일 사천에어쇼에서 드론축구대회

세계최초 드론축구를 개발한 전주시가 전국대회 확대 개최로 '2025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개최되는 '공군과 함께 하는 2018 사천에어쇼' 행사에서 드론축구 붐 조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성인부 · 유소년부 전국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 사천에어쇼(제14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공군, 경상남도, 사천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주시가 주관하는 전국드론축구대회를 비롯해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에어쇼, 항공우주관련 체험 및 전시, 전국모형항공기대회, 버스킹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드론축구대회에는 전국대회 최초로 성인부 대회와 유소년부 대회가 동시 개최될 예정으로, 성인부 25개팀과 유소년부 13개팀이 각각 출전해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각 부분별 우승팀에게는 성인부 400만원과 유소년부 1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군부대, 전국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글로벌 투자기업, 관람객들에게 전주시 드론축구를 널리 홍보하고 행사기간 중 드론축구 관람객 시연 · 체험행사를 운영함으로써 드론축구 붐 조성 및 선수단 추가창단 등 저변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전주시 드론축구 선수단 관계자는 "전주시가 발굴 · 육성한 드론축구를 전국 각지의 관람객들과 주요 공공기관, 국내외기업들에게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에 더 많은 지부와 선수단이 창단돼 유소년 및 성인대회와 다양한 드론 체험행사 등 서로 화합하고 각 기관간 기술 ·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2018 사천에어쇼에서 드론축구를 선보임으로써 산업화 및 글로벌 판로개척에도 힘을 보태고 오는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경찰의 날 기념식

전북경찰청은 25일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 · 따뜻한 인권경찰 · 믿음직한 민생경찰'을 슬로건으로 한 열린 이날 행사는 홍보영상 시청과 포상, 기념사,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박헌수 수상과장이 근정포장을, 박휴성 여성청소년계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 신중구 경찰발전위원회위원과 유성남 자율방범연합회장이 행안부장관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 도내 유공경찰관 300명과 행정 · 주무관 · 의무경찰 81명, 민간인 138명 등 총 519명도 각각 표창과 감사장을 받았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공동주택, 투명하고 살기좋은 공동체마을로

전주시, 동별 대표자 대상 윤리교육 실시

전주시는 25일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위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최승관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관련 노무 · 민사 · 형사상 분쟁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했다.

이어서,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입주민간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활용 교육

전주시는 25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간정보 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첨단정보기술과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공간계획 및 정책시행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인구통계와 3D지형 등 408종에 대해 최신 자료로 데이터 갱신된 자료를 분석해 토지이용과 도시재생, 경관계획 등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KOPSS 시스템의 활용방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KOPSS 시스템은 △지역이(지역계획지원모형) △경관이(경관계획지원모형) △터잡이(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재생이(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시설이(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의 5개 모형분석도구를 활용해 각각의 도시공간계획 수립 시 영역별로 과학적인 공간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무결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각 분야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